

# “K-방역 자신감… 1단계 조정, 회복·방역 모두 잡을 것”

## 문 대통령, 수보회의 주재

장기화로 국민들 경제적 고통  
자영업 생각하면 마음 무거워  
성공적 방역 모두 국민들 덕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 여행·관광·예술·문화 등 코로나의 직접적 타격을 받는 업계 종사자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무겁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방역 완화 조치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의식한 듯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 관리는 한시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

제 회복에 집중하면서도 방역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시설별·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 성도 함께 높일 것이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 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 수칙 위반 시의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른바 K-방역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전 세계 일일 확진자 수가 35만 명을 넘어서며 최대 기록을 이겼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여러 가지 비상조치를 강화하는 상황  
이지만 한국은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를 두고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모두가 국민들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한순간의 방심이 견 chấp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고, 다시 원상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잘 알고 있다”며 국민께 방역 조치와 안전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을 믿고 더욱 심 기일전하겠다. 위기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와 민생 보호에 책임을 다하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농식품부

### 곤충산업화 공모사업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곤충산업육성 지원을 위해 공모를 통해 곤충산업화지원 사업(2개소), 곤충유통사업지원사업(3개소)의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곤충산업화지원사업에는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장수군이 최종 선정돼, 사업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건축비, 시설 설치비, 장비 구매비 등 개소당 10억 원(자부담30%)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경상북도는 2021년까지 HACCP 기준의 전처리 및 1차 가공시설을 구축해 곤충식품소재를 개발하고 생산·가공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곤충유통사업지원사업 대상자로는 경상북도, 충북 청주시, 경남 산청군이 선정돼 곤충유통활성화를 위한 농가 조직화와 제품 개발 홍보 등으로 개소당 총사업비 2억 4000만원이 지원된다.

/한용수 기자

## 국표원, 배송·돌봄 등 로봇국제표준 8종 추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경제에서 활성화될 배송 로봇 등 8종의 비대면 로봇 국제표준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2일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비대면 경제 로봇 기술과 표준 국제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중국 등 로봇 분야 선진 5개국의 전문가가 참여해 로봇의 최신 기술개발과 표준화 동향을 공유하고 표준정책을 논의했다. 포럼은 산업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산업현장과 일반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배송·돌봄·안내 등 서비스로봇의 안전 및 성능분야 표준화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한용수 기자

# “바깥서 도와주시길”… 이낙연, 동교동계 복당설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내 반발 의식한 듯 사태수습 與 최인호, 복당설 동교동계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표가 기자 시절 동교동계를 출입했고, 경계 입문 이후 정 전 의원이 새천년민주당 대표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도 지낸 경력이 있다. 이에 동교동계 복당 가능성에 제기됐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개적

으로 반발 여론이 일었다. 동교동계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와 갈등 끝에 집단 탈당해 안철수 전 의원의 신당 창당을 지원한 전례가 있다.

이후 올해 21대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 복당을 탄진했으나 당내 반발로 불발된 바 있다. 집단 탈당 당시 문재인 당시 대표를 ‘친노 패권’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다 이른바 올드 보이들이 대선 국면에서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근인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SNS를 통해 “우리 당과 지도부의 복당 추진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복당 논의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갖 혐담을 쏟아부으며 당을 떠난 이후 다른 당 대선후보의 당선에 매진하면서 사실상 정권교체를 거부했던 것을 우리 당원들은 똑똑히 기억한다”라며 “복당에 대한 자가발전을 멈추시라”고 덧붙였다.

전날(11일) 전재수 의원도 SNS를 통해 “불과 몇 년도 지나지 않은 적대 행위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은 흔쾌히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만, 이쯤 되면 잊혀졌으면 잊혀진대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할 듯하다. 그동안 쌓아냈던 기록하고도 참담한 그 많은 말들을 어찌 감당하시렵니까”라며 동교동계 복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최영훈 기자

## 반려견 안전관리 심포지엄 오늘 유튜브서 생중계 진행

개물림사고 등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예방·방지를 위한 발표와 토론이 유튜브(Youtube)로 생중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심포지엄’을 13일 오후 2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개물림사고 발생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심포지엄에 참여하려면 유튜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검색하거나,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면 된다.

심포지엄은 이날 2시~3시까지 ▲반려견 안전관리 관련 기질평가(반려견 공격성평가) 방안 및 우리나라 적용 방안 ▲반려견 안전관리 관련 현안 및 해외사례에 대한 전문가 주제 발표에 이어 3시~4시까지 정부·현장전문가·동물보호단체 참석 사안별 토론으로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

# WTO 사무총장 결선 앞둔 유명희 유럽행

## 유럽서 대사들과 면담 등 막판 유세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 최종 3차 라운드 협의 절차는 오는 19일~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최종 라운드는 1,2차 라운드와 달리 유본부장과 응고지 오온조-이엘라(Ngozi Okonjo-Iweala, 나

이지리아) 단 두 명의 후보자만 남은 만큼 기존과는 완전히 새로운 판도가 형성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경합이 예상된다.

유본부장은 이번 방문에서 각국 장관급 인사와 제네바 주재 WTO 회원국 대사들과 면담을 지속하며, 막판 총력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유본부장은 이에 앞서 3차례 유럽 방문과 미국 방문을 통해 각 회원국 장관급 인사, 제네바 주재 WTO 회원국 대사 면담 등 지지교섭 활동을 벌이 바 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 최종 결정과 발표는 3차 라운드 협의의 절차 진행 후 일반이사회 의장(D. Walker)이 회원국들의 편의성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 뒤 11월 7일 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 제주 국제해양레저 박람회 15~16일 온라인으로 개최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관련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5일~16일 온라인으로 ‘제1회 제주 국제 해양레저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요트·보트, 서핑, 스키스쿠버 등 국내외 100여 개 업체의 최신 레저장비를 관람할 수 있는 산업전시관과,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상품과 정보가 가득한 해양레저홍보관, 해양레저 작품 전시관을 마련해 마리나, 수중비경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한용수 기자